

(주)리팩 이일해 사장 한국포장기계협회 신임회장 선출

올해 말까지 사단법인 등록 추진, 위상 높일 듯



이 일 해

한국포장기계협회 회장

한국포장기계협회는 지난 달 10일 열린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주)리팩의 이일해 사장을 제8대 신임회장으로 선출, 올해 말까지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일해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은 맡고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맡겨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협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협회의 사단법인을 추진, 사무국장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이 회장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 협회 사무실을 회원들이 많이 모여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능동적으로 회원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일해 회장은 포장기계업계에 종사하면서 “연구개발 인력과 영업사원 양성”이 가장 절실하다고 토로한다.

“끊임없이 변천하는 소비자 요구에 응하려면 많은 설계요원이 필요합니다. 요즘 국내 학교 교육이 수박 겉핥기식이라서 입사해서 겨우 자립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데만 해도 족히 3년은 걸립니다. 결국 3년 동안은 하는 일에 비해서 고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경력사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선진국에서와 같이 기업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일해 회장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리팩(舊 한국전자공업)은 1967년 자동계량기, 자동포장기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술과 경험을 쌓아왔다.

설립 당시 대부분 수입에만 의존하던 시절, 국내 최초로 밴드설퍼, 자동계량기, 오가필러, 진공포장기 등을 개발·생산하며 현재까지 국내·외 약 15,000대를 공급, 한국포장기계산업에서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일해 회장은 단체는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팩을 운영하면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납기 지연으로 상대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을 모두 지불 했더니 신뢰가 더욱 두터워져서 지금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기계류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이 회장.

그는 특히 포장기계 산업은 공장 자동화에서도 핵심분야이고 상품가치를 경쟁력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

계시장에서 한국 포장기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비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만큼 해외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일해 회장은 올해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편 한층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그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부득이 하게 회원사들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페어플레이(Fair Play)하여 건강한 포장기계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단합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하는 이 회장.

한 나라의 상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포장산업이 발달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일해 회장은 비록 포장기계 총매출액이 아주 작아서 정부에서 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회원사들을 비롯한 포장기계, 포장산업계는 대한민국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장기계에 대한 자부심과 포장산업에 대한 믿음으로 한국포장기계협회를 이끌어 나갈 이일해 신임회장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김

박초혜 기자